

혁신도시 이전기관 지역인재 양성

전북도, 한전·지방자치단체개발원·지역대학 등과 오픈캠퍼스 지역교육과정 협약

전북도는 19일 대학생 직무능력 향상 및 이전지역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국전기안전공사 및 지방자치단체개발원, 지역대학과 함께 혁신도시 오픈캠퍼스 지역교육과정 협약을 체결했다. 지역대학은 전북대, 전주대, 우석대, 원광대, 군산대, 전주비전대이다. 이번 협약은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해 조성환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 박병호 지방자치단체개발원 원장 및 6개 지역대학 총장들이 참석,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지역대학

생들의 진로 모색 기회를 제공하고 인재 양성 등을 도모하기 위한 지역교육과정(오픈캠퍼스) 운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그 동안 전북도는 혁신도시가 지역 성장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이전공공기관과 함께 지역연계사업을 발굴하고 이전지역인재 육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참여를 유도해 왔다. 이에 한국전기안전공사, 지방자치단체개발원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기

관 특성에 적합한 지역교육과정을 개설해 올해 운영하기로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지역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전기설비 Basic 과정'을 계획했다. 하계방학 중 총2회 운영하며 전북대 등 6개 대학에서 추천한 80명(회당 40명)의 학생들이 참여한다. 지방자치단체개발원은 자체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다양한 교육에 지역대학생을 참여시키고자 한다. 우선, 2018년에는 대학생 취업 및 창업지원에 대

한 사업을 소개하고 국제화 역량 강화 교육에 학생들을 참여시켜 시범적으로 지역교육과정을 운영한다. 2019년부터는 지역대학 의견을 수렴하여 정규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오픈캠퍼스를 운영하고 대학생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지역인재로 성장하는데 도움을 주고자한다. 도 관계자는 "청년들의 혁신도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취업 및 창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이전공공기관의 지역교육과정 참여를 늘려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송 지사, 군산주점 화재현장 긴급 점검

송하진 도지사는 19일, 지난 6월 17일 발생한 군산주점 화재현장을 방문했다. 송 지사는 화재현장을 방문해 화재 및 인명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다각적으로 문제점을 분석해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화재로 안타깝게 희생당한 피해자와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화재발생 당시 빛난 시민의식으로 더 큰 인명피해를 막아준 시민들과, 신속하게 최선을 다해 화재를 진압하고 인명을 구조한 군산소방서 소방대원들을 격려했다. 송 지사는 "이번 군산 주점 화재로 피해를 입은 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소방안전관리 및 화재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특히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송하진 도지사는 19일 군산 주점 화재현장을 방문하여 인명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구조를 도운 시민들과 소방대원들을 격려하는 등 현장방문을 통해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군산 3·1운동 100주년 기념관 개관

전시·관람보다 다채로운 체험교육 공간에 초점

100년 전 일제강점기 시절 3.1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 군산지역의 항일 투쟁의 역사를 기념하기 위한 기념관이 문을 열었다. 19일 시에 따르면 문동신 군산시장, 심덕섭 국가보훈처 차장, 권율정 국립대전현충원장과 독립유공자 유족, 학생, 지역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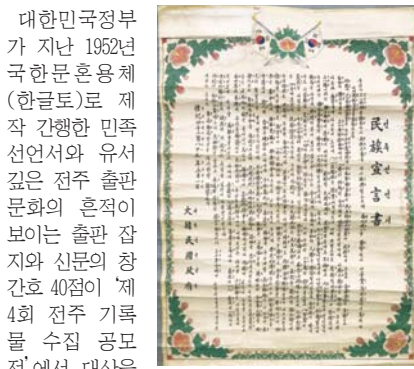
운데 군산3.1운동 100주년 기념관 개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군산3.1운동 100주년 기념관은 한강 이남 최초의 3.1 만세운동지이며 28번의 만세운동으로 3만7천여명이 참가해 거사를 일으킨 군산의 역사성을 강조하고 독립운동 및 호국보훈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해 어린이와 관광객들에

게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자 건립됐다. 총 사업비 39억7천만원을 투입한 이번 기념관 건립사업은 3.5만세운동 당시 교사와 학생이 주도적으로 만세운동을 이끌었던 영명학교를 재현해 연면적 969.2㎡의 지상 3층 규모로 2015년부터 2018년 동안 4년에 걸쳐 공사를 추진했다. 내부공간은 단순한 전시·관람보다는 다양한 체험교육 공간에 초점을 맞춰, 1층 추모기록실(독립의 빛)에는 군산의 3.5만세운동과 항일독립운동에

대한 역사를 기록했으며 추모의 벽을 통해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애국지사를 추모하는 공간을 마련했다. 2층 역사재현실(그날의 함성속으로)에는 관광객들이 직접 당사자가 되어 그날의 함성과 뜨거운 나라사랑 정신을 직접 느껴 보는 공간을 조성했으며 3층은 체험교육실(그들과의 이어짐)로 태극기 만들기, 태극기 전파하기, 만세운동 전파하기, 겨례의 함성 등 여러 가지 재미있는 아날로그와 디지털 프로그램이 공존하는 체험공간으로 조성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물려받은 민족선언서 '전주정신의 숲' 되다

전주 기록물 수집 공모전 3·1운동 부문 대상



대한민국정부가 지난 1952년 국한문혼용체(한글도)로 제작 간행한 민족선언서와 유사 깊은 전주 출판문화의 흔적이 보이는 출판 잡지와 신문의 창간호 40점이 '제4회 전주 기록물 수집 공모전'에 접수된 650여점의 기록물에 대한 전주시 민간기록물관리위원회

바리치 않고 모아둔 것인데, 개인의 자료가 전주의 의미 있는 기록으로 남게 되어 영광이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와 함께, 이번 공모전에서는 △1980년대 3.1운동 기념행사 사용된 '태극기' △독립유공자들의 주요 활동이 기록이 수록된 '독립열사' (1949년)가 3.1운동 부문 대동상(최우수)에 선정됐으며, 그

외에도 △전북의 3.1운동을 포함한 독립 운동 역사 기록이 담긴 자료집 및 기념행사 자료 △생활속 3.1운동을 기억하는 민간 기록물(기념우표, 잡지, 노트 등) 문 등 2개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먼저, 3.1운동 부문 꽃심상(대상)에는 민족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대한민국정부가 지난 1952년 국한문혼용체로 제작 간행한 민족선언서가 선정됐다. 이 기록물은 기증자가 선친에게 물려받아 간직하고 있었다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시에 기증했다. 또한, 전주기록물 부문 꽃심상(대상)에는 전주 지역 출판 잡지와 신문 창간호(40점)가 선정됐다. 전북도민신문, 전주일보, 전라일보(재호변경) 창간호와 번영로, 까치고을, 마당발 등 생활 정보지 창간호, 전주예술(예총잡지), 체신정보(우체국소식지), 소년문화(청소년잡지), 더불어사는 전주(반상회보) 등 잡지 창간호까지 전주의 출판문화를 알 수 있는 가치가 높은 기록물들이다. 전주 부문 꽃심상 수상자인 김용철 씨는 "개인적으로 출판물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많아 단지

시 기획조정국 관계자는 "전주의 기억을 찾아내려는 노력을 계속할 써는" 개인적으로 출판물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많아 단지

제6회 무주▲[글]영향제

Muju Film Festival 2018

2018.6.21. - 6.25.

www.mjff.or.kr